

완도경찰, 뺑소니범 검거 기여 택시기사 표창

도주 운전자 추격하며 신고...20분만에 검거

완도경찰서(서장 김광철)는 보행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운전자 A씨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택시기사 B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 B씨가 곧바로 A씨를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해 범행발생 약 20분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은 "목격자가 없었다면 검거가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큰일을 하셨다"며 "협력단체 합동 음주단속,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민의 안전과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 뺑소니범 검거 기여 택시기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완도경찰서 제공

포토뉴스



대광여고, 사랑의 헌혈 동참 대광여자고등학교가 지난 3일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헌혈 봉사'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희망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버스 2대를 이용해 진행했다. /조선주 기자



순천소방서,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순천소방서는 2023년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우수 관서로 선정되어 지난 4일 전남소방본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교육청, 글로벌 교육박람회 릴레이 운영 준비 박차 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관내 학부모 100여명, 글로벌 T위원 25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준비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박선미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 추진 단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의 이해를 돕고 향후 광양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운영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실시했으며 연수가 끝나고 광양글로벌 T팀 협의회를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조순의 기자

전남도, 조용안 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위촉



전남도는 남도의 전통국악을 잇고 발전시킬 제8대 전라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으로 조용안 판소리장단 보유자를 위촉했다. 조용안 신임 예술감독은 전북도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 장단 보유자다.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과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마당창극 '천한 맹인 이 눈을 본다', '아나오타. 배갈라라' 연출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국악 대중화에 앞장섰다. 조용안 예술감독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장르와 공간을 넘어, 가·무·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전통 국악을 대중화하고 관광자원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5일 위촉식에서 "판소리, 티악, 지휘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 시대를 반영한 공연 기획 등 국악단이 한층 더 약하게 꿈이 이루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순의 기자

순천시, 성금 모아 뇌출혈 베트남 환자 귀국 도움 '눈길'

순광 베트남 커뮤니티·이랜드재단·순천제일교회 등 후원



순천시는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했으나 의식이 없는 베트남 환자를 위해 순천시와 각 기관·단체가 협력해 1706만원의 성금을 연계로 금·전달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지난 2월 20일 쓰러진 후 4월 3일 출국하기까지 병원비 및 베트남 이송비용으로 총 57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가물포 병원에서는 자체 성금모금과 감면을 통해 약 3500만원을 후원했다. 순천시는 ▲순천·광양 베트남 커뮤니티(순천·광양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모임) 656만원 ▲이랜드복지재단 500만원 ▲순천제일교회 300만원 ▲순천시가족센터 양지영 통역사 25만원 등 각 기관·단체와 협력해 총 1706만원을 연계모금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선 모든 기관과 후원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환자분이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본국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주시교육청, 청년회의소와 '학생봉사 활성화' 노력

'참여중심 학생봉사활동 내실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5일 광주지구청년회의소와 참여중심 봉사활동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지구청년회의소 김근우 지구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 기관은 참여중심 학생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삶의 보람을 배우고 더

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역사회 연계형 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청소년 봉사자의 안전과 체계적인 봉사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함께 진행한다. 광주지구청년회의소 김근우 지구회장은 "시교육청과 협력해 광주지구청년회의소의 이념인 봉사, 우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역발전과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광주지구청년회의소 회원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봉사활동이 야말로 최고의 인성교육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다량면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순주 기자

광주시 '기후농부학교' 개강

시민공동체 12곳·80여 명 참여...퇴비 살포 등 농작업



광주시는 지난 6일 도시텃밭정원에서 '2024년 기후농부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광주서구가족센터 등 시민 공동체 12개소, 80여 명이 참여해 '어떤 작물을 언제 심을까?'라는 주제로 교육을 받고 퇴비 살포 등 농작업을 실시했다. 기후농부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4~12월 20회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들은 매월 격주 토요일 도시텃밭정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이론교육과 실습을 하고 텃밭정원을 가꾸는 공익활동을 한다. /김도기 기자

'글로벌 미래교육' 행정실장 역량 강화

순천교육청, 70여 명 대상...전문 강사초빙 연수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유·초·중 행정실장 70여 명을 대상으로 함께 여는 '글로벌 미래교육을 위한 행정실장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2024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육지원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설명하고, 단위학교 행정 효율화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정보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주문화유산야행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체험·공연·투어 등...오는 12~21일 선착순 모집

동구는 '광주문화유산야행'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유산야행'은 이달 26~27일 양일간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며 사전 접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코스형 주제 체험인 '동구 의병양성소' ▲이머시브 연극 '동인(東人)' ▲미니 퍼레이드 '꼬마 의병단'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투어' 등 4가지이다. 광주 문화유산 한마당의 주제 체험인 '동구 의병양성소'는 조선시대부터 구한말까지 활약했던 광주 의병과 관련된 소품 및 무기 체험, 식량 만들기 등을 통해 의병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대상은 초·중·고생 30명(회차별)이다. 관객과 배우가 함께 연기하는 이머시브 연극 '동인(東人)'은 차(茶)를 마시며 역사 속 광주 여성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공연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니 퍼레이드 '꼬마 의병단'은 의병 복장을 갖추고 광주읍성을 지키는 의병이 돼 5·18민주광장부터 광주읍성유적까지 행사장 일원을 순찰하는 체험으로 유·초·중·고생 25명(회차별)을 대상으로 한다. 종료 후에는 임명장도 수여한다.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투어' 역시 동구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어린이 해설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역사 투어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체험·공연·전시 등 일제agam까지 광장을 배경으로 의병, 동구의 인물, 독립운동 학생 등을 조명하는 8야(夜) 테마 28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